

동남아에 대한 한·중·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와 경쟁관계: 중국의 한·일수출 구축효과를 중심으로*

김 완 중**

I. 서론

중국의 WTO가입 이후 세계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세계 총 수출에서 중국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3.4%, 2003년 5.8%, 2008년 8.9%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세계수출시장에서 중국의 비중확대는 필연적으로 여타 국가들의 비중 축소를 가져온다.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는 여타 국가들의 세계수출을 구축할 수 있어, 수출에 있어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 크게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세계시장점유율 확대 그 자체가 반드시 여타 국가들의 세계수출을 축소시키거나 구축한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수출입확대를 통한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으로 세계 잠재경제 성장률이 높아져 세계교역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중국의 수입확대로 여타 국가들의 중국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조교수. wk7862@dau.ac.kr

에 대한 수출 역시 확대되는 또 다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3국 시장에서 중국과 여타 국가간 수출경쟁 격화 및 그 과정에서 중국산제품에 의한 여타 국가들의 제품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제품에 의한 구축여부는 여타국가의 생산요소 부존 및 보유 기술수준에 있어 중국과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같은 국가에 있어서도 산업별로 또는 생산단계별로도 다를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제품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국적기업들의 세계적 생산분할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수출의 여타국가 수출 구축여부와 그 정도는 국가와 산업별 또는 생산단계별 제품에 따라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수출에 의한 여타국가 수출의 구축 여부에 대한 대부분 기존 연구¹⁾에 따르면, 미국, 일본, EU 등 3국 시장에서 중국의 여타 국가 수출구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시장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김완중(2010)의 경우 1998~2008년 연도별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한중일 3국의 대동남아 수출 구조 및 동남아시아(동남아 10개국 중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에서의 경쟁관계를 산업군별(HS 2단위 기준 산업군)로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한국 및 일본의 대동남아 수출은 중국의 수출에 의해서 구축되었다. 즉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증가가 1% 증가할 때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은 1.48% 감소하였으며, 일본의 대동남아 수출은 1.4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구축여부와 그 정도는 같은 국가 내에서 산

1) Sanjaya Lall et al.(2004), Ahearne et al.(2003), Eichengreen et al.(2004), Greenaway et al.(2008). 이들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김완중(2010) 참조.

업군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같은 산업에서도 일본과 한국에 있어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국(또는 일본)에서 동남아로 수출하는 제품과 중국에서 동남아로 수출하는 제품이 보완재적 성격이 강하면,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확대는 한국(또는 일본)의 대동남아 수출을 동시에 확대시킬 것이나, 대체재적 성격이 강할 경우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은 한국(또는 일본)의 대동남아 수출을 구축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중국수출변수의 계수추정치 부호에 따라 중국과 한국(또는 일본)이 수출에 있어서 보완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산업별로 구분하고 있다.

그의 논문에서는 중국 수출의 한국 및 일본수출에 대한 구축효과가 산업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 차이는 국가와 산업에 있어서 생산요소 집약도의 차이와, 같은 산업에 있어서 일본 및 한국의 중국과의 생산기술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한국과 일본에 있어 중국은 가장 큰 투자대상국이며, 이들 국가 소속의 중국 투자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대부분 동남아를 포함한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 역시 그의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었어야 했다. 즉 중국수출의 한국 및 일본수출 구축은 중국현지기업(local company)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중국 진출 외자기업(한국과 일본에서 진출한 기업 포함)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수출의 2/3정도가 외자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보다는 후자에 의한 구축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도 한국과 일본기업에 의한 것과 미국 등 여타 투자기업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 중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진출한 기업에 의한 구축이라면,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이 중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경우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에서

생산하여 동남아로 수출하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후 중국에서 상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한국수출은 중국수출에 의해서 대체된다. 두 번째는 한국(또는 일본)과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 및 부분품을 이용하여 최종재를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예를 들면, 동남아 현지기업 생산, 동남아진출 한국 또는 일본 등 외자기업에 의한 생산의 경우)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과 한국(또는 일본)의 대동남아 수출은 동반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을 현실적으로 위의 유형별(즉 중국현지기업 또는 중국진출 외자기업에 의한 수출)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김완중(2010)의 분석결과를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만,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의 많은 부분이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분할과정과 관계가 있다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수출에 의한 한국과 일본수출의 동반확대 및 구축효과는 생산공정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즉 중간재 수출의 경우와 최종재 수출의 경우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에 있어 중요한 수출시장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3국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중국수출에 의해 한국과 일본수출이 구축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생산공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경쟁관계를 선진국 시장이 아닌 신흥시장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그 관계를 생산공정별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동남아시아에서 한중일 3국의 대동남아 수출구조변화를 분석하고, 3장에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대동남아 수출에 있어 중국수출의 구축 여부를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II. 한중일 3국의 대동남아 수출구조 변화

1. 한중일의 수출에 있어 대동남아수출 비중은 어떻게 변했는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중일 3국의 수출에서 대동남아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약 10년 동안 확대되었는데 특히 중국의 동 비중 확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1998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동 비중이 거의 같으나, 중국의 경우 5.99%에서 8%로, 일본의 경우 12.02%에서 13.22%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중일 3국에 있어 수출시장으로서 동남아의 중요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동남아국가를 기존 ASEAN6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나중에 ASEAN에 가입한 CLMV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한중일 3국의 수출의 대부분은 기존 ASEAN6 국가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전체 대동남아 수출에서 CLMV 국가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전체 대동남아 수출에서 CLMV 국가 비중이 1998년 15.03%에서 2008년 16.25%로 높아진데 반해, 한국의 경우 10.31%에서 17.04%로, 일본의 경우 3.33%에서 7.94%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한중일 3국의 대동남아 수출에 있어서 구조의 변화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한중일 3국의 수출에서 대동남아 수출비중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3국 모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비중이 높아진 반면, 미얀마, 필리핀의 비중이 낮아졌다. 특히 중국의 경우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일본의 경우 태국 비중 확대가 두드러졌다.

<표 1> 한중일 각국 전체 수출에서 ASEAN이 차지하는 비중

	중국			한국			일본		
	1998	2003	2008	1998	2003	2008	1998	2003	2008
베 트 남	0.54	0.72	1.06	1.03	1.32	1.83	0.34	0.56	1.00
캄 보 디 아	0.06	0.07	0.08	0.05	0.05	0.07	0.01	0.01	0.02
라 오 스	0.01	0.02	0.02	0.00	0.00	0.01	0.00	0.00	0.01
미 양 마	0.29	0.21	0.14	0.11	0.09	0.06	0.05	0.03	0.02
C L M V	0.90	1.02	1.30	1.19	1.46	1.97	0.40	0.60	1.05
브 루 나 이	0.00	0.01	0.01	0.01	0.02	0.02	0.02	0.02	0.02
인도네시아	0.64	1.02	1.20	1.34	1.74	1.86	1.11	1.52	1.61
말레이시아	0.87	1.40	1.50	2.71	1.98	1.36	2.40	2.38	2.10
필 리 핀	0.82	0.71	0.64	2.14	1.53	1.18	1.87	1.91	1.27
싱 가 폴	2.12	2.02	2.26	3.06	2.38	3.82	3.81	3.15	3.40
태 국	0.64	0.87	1.09	1.09	1.30	1.35	2.41	3.40	3.77
ASEAN6	5.09	6.03	6.70	10.35	8.95	9.59	11.62	12.38	12.17
ASEAN10	5.99	7.05	8.00	11.54	10.41	11.56	12.02	12.98	13.22

출처: IMF, DOT 이용 계산.

2. 한중일의 생산단계별 대동남아 수출구조는 어떻게 변했는가?

생산단계별 대동남아 수출구조를 보기에 앞서 먼저 생산단계별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자. 생산공정별 제품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1차산품, 중간재, 그리고 최종재 3단계로 분류된다. 중간재는 다시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최종재의 경우 자본재와 소비재로 나눌 수 있다. 각 생산공정별 구체적인 제품명은 <표 2>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생산공정별 제품 중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와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수출간 관계를 분석한다.

<표 2> 단계별 BEC 코드 분류

3단계	5단계	BEC 코드	BEC 제품명
1차산품		111	산업용 식음료품
		21	산업용 원자재
		31	연료 및 윤활유
중간재	반제품	121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22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321	자동차 차체
	부품 및 부분품	322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
		42	운송 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것
		53	운송 장비의 것
최종재	자본재	41	운송 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521	산업용 운송장비
	소비재	112	가정용 식음료 제품
		122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
		51	승객용 자동차
		522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61	내구성 소비재
		62	반내구성 소비재
		63	비내구성 소비재

출처: UN Statistical Division 자료 활용 재정리.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동남아(ASEAN 10)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특징은 중간재 비중이 최종재 비중에 비해 크게 높다는 것이다(표 3~표 5 참조).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중간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중간재 비중이 최종재에 비해 다소 높지만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이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로부터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입한 후 최종재를 생산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교역에 있어서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3국 모두 중간재 중 반제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에 대한 이유는 면밀히 분석해보아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부상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분할에 있어서 동남아의 역할을 변경시키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경우 최종재 중에서 자본재 비중 역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본재 비중이 1998년 14.1%에서 2008년 27.3%로 크게 높아졌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20.8%에서 28.8%로 높아졌다.

한중일 3국의 생산단계별 수출구조변화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중간재 비중이 1998년 80.8%에 달했으나 2008년 67.5%로 크게 축소된 반면 최종재의 경우 18.8%에서 31.9%로 확대되었다. 중간재의 경우 반제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은 축소되었으며, 최종재의 경우에도 자본재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간재 비중이 여전히 낮은 것은 사실이나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꾸준히

<표 3> 생산단계별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비중 추이(단위: %)

	중간재			최종재			1차산품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소계	자본재	소비재	소계	
1998	34.7	45.9	80.5	14.0	4.7	18.7	0.3
1999	32.6	45.7	78.3	14.8	6.0	20.7	0.4
2000	34.5	44.1	78.5	13.8	6.7	20.4	0.5
2001	36.8	36.3	73.2	18.5	7.2	25.8	0.5
2002	35.2	37.1	72.3	20.2	6.5	26.6	0.5
2003	33.2	37.6	70.8	21.0	7.1	28.1	0.4
2004	35.5	37.3	72.8	18.8	7.5	26.3	0.4
2005	36.6	34.2	70.7	20.8	7.5	28.3	0.5
2006	37.4	35.8	73.2	20.2	5.6	25.8	0.5
2007	36.7	32.2	68.9	24.9	5.0	29.9	0.5
2008	40.8	26.4	67.2	27.2	4.6	31.8	0.5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중간재 비중은 1998년 48.3%에서 2008년 54.7%로 확대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지난 10여년 동안 중간재와 최종재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중간재 중에서 반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이 축소되는 구조 변화를 보였다.

<표 4> 생산단계별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비중 추이(단위: %)

	중간재			최종재			1차산품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소계	자본재	소비재	소계	
1998	28.1	18.0	46.1	19.9	24.6	44.5	4.7
1999	26.8	22.1	48.8	18.6	21.9	40.5	5.5
2000	25.4	22.2	47.6	17.6	21.1	38.7	7.0
2001	25.4	25.6	51.0	19.0	20.3	39.2	5.1
2002	24.2	28.1	52.3	17.9	19.7	37.6	5.2
2003	24.2	27.4	51.6	19.6	19.2	38.9	4.9
2004	29.1	28.2	57.3	21.1	16.5	37.6	2.6
2005	29.7	27.1	56.8	22.4	14.6	36.9	3.1
2006	30.6	26.1	56.7	24.9	14.1	39.0	2.0
2007	31.9	23.0	54.9	25.7	15.6	41.3	2.0
2008	32.7	21.3	54.0	28.4	14.7	43.2	1.5

주: 비중의 합이 100이 되지 않는 것은 기타제품 비중이 존재하기 때문임.
출처: UN, Comtrade DB.

<표 5> 생산단계별 일본의 대동남아 수출비중 추이(단위: %)

	중간재			최종재			1차산품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소계	자본재	소비재	소계	
1998	25.0	42.9	67.9	22.1	5.6	27.7	0.4
1999	25.3	43.5	68.8	20.2	6.0	26.2	0.3
2000	23.3	44.5	67.8	22.1	5.2	27.3	0.2
2001	24.3	43.4	67.6	20.8	5.8	26.6	0.3
2002	25.0	42.3	67.3	20.2	6.3	26.4	0.3
2003	25.4	41.4	66.8	19.5	6.8	26.3	0.4
2004	26.3	40.3	66.6	19.9	6.6	26.5	0.4
2005	28.3	39.4	67.8	19.4	6.4	25.8	0.3
2006	30.1	38.1	68.2	19.0	6.1	25.0	0.4
2007	31.3	36.9	68.3	19.3	5.8	25.1	0.4
2008	33.2	34.4	67.5	20.4	6.1	26.4	0.4

주: 비중의 합이 100이 되지 않는 것은 기타제품 비중이 존재하기 때문임.
출처: UN, Comtrade DB.

3. 한중일의 대동남아 수출대상국별 구조는 어떻게 변했는가?

(1) 1차 산품

중국의 대동남아 1차 산품 수출은 1998년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2008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으로 다변화되었다(표 6 참조). 특히 태국과 베트남에 대한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1998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다변화되었는데, 특히 필리핀과 태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1998년까지 인도네시아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으나, 점차 인도네시아 비중이 크게 떨어지는 대신, 2008년 기준으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수출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다.

<표 6> 한중일의 대동남아수출에서의 동남아 각국 비중: 1차산품

	중국			한국			일본		
	1998	2003	2008	1998	2003	2008	1998	2003	2008
인도네시아	20.0	40.8	25.9	18.9	11.4	7.7	62.6	11.2	10.3
캄보디아	0.1	0.1	0.1	13.2	20.5	15.4	0.3	0.5	0.6
라오스	0.1	0.0	0.1	0.0	0.0	0.0	0.0	0.0	0.0
미얀마	0.2	0.4	0.6	0.2	0.7	3.4	0.1	0.0	0.4
말레이시아	30.6	22.7	13.7	9.8	18.4	11.3	8.8	20.5	18.2
필리핀	14.3	14.8	12.9	2.5	16.7	13.4	5.3	11.0	5.5
싱가폴	18.3	4.8	19.9	25.5	14.8	11.3	7.3	6.1	6.3
태국	12.1	6.1	16.6	5.6	6.3	12.1	10.3	37.5	26.4
베트남	4.3	10.2	10.2	24.3	11.3	25.5	5.3	13.1	32.3
브루나이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출처: UN, Comtrade 이용 계산.

(2) 중간재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중간재 수출은 싱가포르, 태국 중심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중심으로 다변화되었다(표 7 참조). 중국의 대동남아 중간재 수출 중 싱가포르 비중은 1998년 35%로 절대적으로 높았으나 2008년 23%로 크게 축소된 대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비중은 각각 9%와 10%에서 16%와 15%로 확대되었다. 특히 중간재 중에서 부품 및 부분품의 경우 싱가포르 중심이었던 것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구조가 다변화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의 동남아에 대한 중간재 수출은 1998년까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에 집중되었으나,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비중이 크게 축소된 반면 태국, 베트남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동남아 중간재수출에 있어 싱가포르 비중이 2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반제품 수출에 있어서도 싱가포르의 비중이 줄고 태국과 베트남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2008년 기준으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품 및 부분품의 경우 그동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비중이 가장 높게 유지되어 왔는데, 말레이시아 비중은 크게 축소되고 싱가포르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중간재 수출구조는 1998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2008년 태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특징을 보인다. 싱가포르 비중은 1998년 28%에서 2008년 19%로 크게 축소된 반면 태국 비중은 22%에서 33%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반제품 뿐만아니라 부품 및 부분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한중일 3국의 대동남아 중간재 수출은 싱가포르

<표 7> 한중일의 대동남아수출에서의 동남아 각국 비중: 중간재

		중국			한국			일본		
		1998	2003	2008	1998	2003	2008	1998	2003	2008
반 제 품	인도네시아	11.0	18.3	17.8	22.6	26.8	20.5	14.0	13.9	13.2
	캄보디아	1.6	3.0	1.9	0.5	0.8	0.9	0.1	0.1	0.1
	라오스	0.1	0.2	0.2	0.1	0.0	0.0	0.0	0.0	0.0
	미얀마	5.5	4.9	2.2	1.0	1.3	1.1	0.3	0.1	0.1
	말레이시아	11.4	13.9	14.1	9.3	12.1	12.2	21.0	20.5	16.5
	필리핀	10.5	10.6	9.2	14.5	11.5	10.3	11.4	11.7	9.4
	싱가폴	26.5	15.1	15.9	19.4	10.2	12.5	23.4	16.9	15.9
	태국	18.9	16.5	17.6	14.5	15.3	20.6	25.5	29.9	35.8
	베트남	14.4	17.2	20.8	17.9	21.9	21.8	4.2	6.9	9.0
	브루나이	0.1	0.1	0.2	0.3	0.1	0.1	0.1	0.0	0.1
부 품 및 부 분 품	인도네시아	5.8	8.2	12.1	3.3	11.3	6.8	6.8	12.1	12.1
	캄보디아	0.3	0.1	0.3	0.0	0.1	0.2	0.0	0.0	0.0
	라오스	0.1	0.0	0.2	0.0	0.0	0.1	0.0	0.0	0.0
	미얀마	1.7	1.4	1.3	0.5	0.1	0.1	0.2	0.1	0.1
	말레이시아	16.4	30.0	24.9	38.4	25.8	19.8	22.2	19.1	18.0
	필리핀	13.1	9.7	8.7	24.0	19.9	15.1	19.9	18.5	12.3
	싱가폴	47.5	33.6	34.4	26.4	30.7	41.6	29.9	21.7	21.3
	태국	12.5	13.2	11.7	6.0	9.1	10.9	19.9	26.3	31.1
	베트남	2.6	3.8	6.4	1.4	2.9	5.4	1.1	2.2	5.1
브루나이	0.0	0.0	0.0	0.0	0.0	0.1	0.0	0.0	0.1	
중 간 재	인도네시아	8.9	12.9	15.5	11.6	18.6	15.1	9.5	12.8	12.6
	캄보디아	1.1	1.5	1.3	0.2	0.4	0.6	0.0	0.0	0.0
	라오스	0.1	0.1	0.2	0.0	0.0	0.0	0.0	0.0	0.0
	미얀마	4.0	3.1	1.9	0.7	0.7	0.7	0.2	0.1	0.1
	말레이시아	13.3	22.5	18.4	25.9	19.3	15.2	21.7	19.6	17.2
	필리핀	11.5	10.1	9.0	19.9	16.0	12.2	16.8	15.9	10.9
	싱가폴	34.7	24.9	23.2	23.4	21.1	23.9	27.5	19.9	18.7
	태국	16.4	14.8	15.2	9.7	12.0	16.8	22.0	27.7	33.4
	베트남	9.8	10.1	15.1	8.5	11.9	15.3	2.3	4.0	7.0
	브루나이	0.1	0.1	0.1	0.1	0.0	0.1	0.0	0.0	0.1

출처: UN, Comtrade 이용 계산.

폴 중심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다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과 2008년을 비교해보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태국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반적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비중은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는 싱가포르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은 상태이다.

(3) 최종재

한중일 3국의 대동남아 최종재 수출에 있어서도, 중간재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98년과 2008년을 비교해보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태국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필리핀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표 8 참조). 그러나 2008년 기준으로 한중일 3국 모두에 있어 싱가포르의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 중간재와 마찬가지로 최종재 수출에 있어서도 싱가포르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특히 자본재의 경우 싱가포르 의존도가 크게 심화되었다. 일본의 경우 중간재 수출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비중이 축소되고 태국의 비중이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도 중간재 수출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중심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종재 중에서 자본재와 달리 소비재의 경우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중국의 경우 대동남아 소비재 수출 중 싱가포르 비중이 축소되고 말레이시아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자본재와 동일하나, 한국의 경우 싱가포르의 비중이 축소된 대신 베트남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동남아 소비재 수출에 있어 베트남 비중은 1998년 24%에서 2008년 34%로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싱가포르 비중이 1998년 46%에서 2008년 39%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가장 높았다. 일본의 경우 중간재나 자본

재 수출에 있어서 태국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소비재에 있어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8> 한중일의 대동남아수출에서의 동남아 각국 비중: 최종재

		중국			한국			일본		
		1998	2003	2008	1998	2003	2008	1998	2003	2008
자 본 재	인도네시아	5.9	10.9	13.8	9.2	12.5	11.4	9.0	11.0	14.7
	캄보디아	1.2	0.3	0.5	0.4	0.3	0.6	0.1	0.2	0.6
	라오스	0.2	0.7	0.4	0.0	0.1	0.2	0.1	0.1	0.1
	미얀마	8.5	3.0	1.6	2.1	1.9	0.3	0.8	0.6	0.5
	말레이시아	16.0	18.4	17.5	22.9	18.3	13.9	18.5	16.2	14.5
	필리핀	13.5	6.8	4.9	11.1	10.7	5.7	12.3	10.1	8.0
	싱가폴	42.0	39.2	37.3	36.5	25.6	48.6	39.5	28.5	27.2
	태국	7.4	15.2	12.5	10.6	16.6	9.5	16.2	28.6	24.8
	베트남	5.3	5.3	11.3	7.2	13.9	9.7	3.3	4.8	9.5
	브루나이	0.0	0.2	0.1	0.0	0.2	0.2	0.2	0.1	0.2
소 비 재	인도네시아	16.2	13.5	12.8	15.7	15.2	10.7	2.9	8.8	9.9
	캄보디아	1.1	0.8	0.7	2.8	1.1	1.9	0.5	0.5	0.6
	라오스	0.2	0.6	0.1	0.1	0.2	0.9	0.2	0.1	0.4
	미얀마	3.1	3.6	1.8	1.1	0.8	1.0	0.9	0.1	0.3
	말레이시아	12.8	20.9	26.0	7.3	28.2	10.8	11.2	19.9	16.6
	필리핀	18.1	12.0	9.9	13.8	8.9	13.3	16.0	12.3	8.4
	싱가폴	32.7	32.6	26.6	23.2	17.2	13.8	45.8	37.1	38.9
	태국	5.2	8.1	12.1	11.6	9.3	12.3	17.5	15.1	17.6
	베트남	10.5	7.7	9.6	23.9	17.8	34.0	4.1	4.4	5.6
	브루나이	0.1	0.2	0.2	0.5	1.4	1.3	1.0	1.7	1.7
최 종 재	인도네시아	11.6	12.2	13.5	10.9	13.2	11.3	7.8	10.5	13.6
	캄보디아	1.1	0.5	0.6	1.0	0.5	0.8	0.2	0.2	0.6
	라오스	0.2	0.7	0.3	0.1	0.1	0.3	0.1	0.1	0.2
	미얀마	5.5	3.3	1.7	1.9	1.6	0.4	0.9	0.5	0.5
	말레이시아	14.3	19.6	20.4	19.0	20.8	13.4	17.0	17.1	15.0
	필리핀	16.0	9.4	6.6	11.8	10.3	6.8	13.1	10.7	8.1
	싱가폴	36.9	36.0	33.7	33.1	23.5	43.5	40.8	30.7	29.8
	태국	6.2	11.7	12.4	10.8	14.8	9.9	16.5	25.1	23.1
	베트남	8.2	6.5	10.8	11.4	14.9	13.2	3.4	4.7	8.6
	브루나이	0.1	0.2	0.1	0.2	0.5	0.3	0.3	0.5	0.5

출처: UN, Comtrade 이용 계산.

4. 한중일 3국의 동남아 수입시장점유율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

한중일 3국 전체의 동남아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대부분 국가에서 하락하고 있다(표 9 참조). 1998년과 2008년의 점유율을 비교하면, 단지 베트남과 브루나이수입시장에서만 한중일 3국 전체의 점유율이 확대되었을 뿐 여타 국가에서의 점유율은 하락하였다. 특히 인도차이나 국가 중에서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그리고 ASEAN6 국가 중에서는 필리핀과 싱가포르 수입시장에서의 한중일 3국 전체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수출경쟁이 한중일 3국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국가인 미국, 유럽 국가 등과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남아 수입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전반적인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한중일 3국간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점유율 확대 폭 보다 한국과 일본의 점유율 하락 폭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점유율 하락이 중국의 점유율 확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중국의 점유율 확대 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의 점유율 확대에 의해서도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동남아 모든 국가에서 확대되고 있는데 인도차이나 국가에서는 베트남과 라오스, ASEAN6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컸다. 2008년 기준으로 동남아 국가 중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얀마와 베트남으로 각각 31.3%와 19.4%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들 인도차이나 국가들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세계시장 편입이전에 일본, 유럽, 한국 등에 의해 선점된 ASEAN6에 비해 이들 국가가 뒤늦게 개방되었다는 측면 등

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동남아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소폭 하락 또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시장 점유율이 여타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으며, 라오스와 태국 수입시장에서는 소폭 확대되었다. 반면 동남아 국가 중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베트남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이 1998년 12.6%에서 2008년 8.8%로 크게 하락했으며, 캄보디아와 미얀마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역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동남아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여 중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 국가는 브루나이가 유일하다. 특히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수입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하락폭이 컸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역시 1998년 약 23%에서 2008년 19%로 하락하였다.

<표 9> ASEAN 각국의 수입시장에서 한중일의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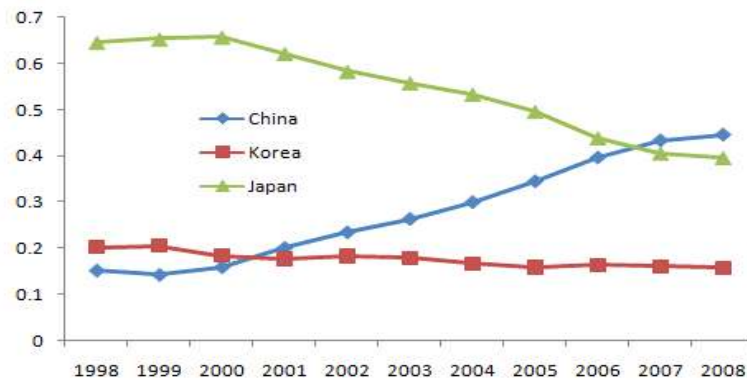
	중국			한국			일본		
	1998	2003	2008	1998	2003	2008	1998	2003	2008
베트남	4.55	12.43	19.39	12.56	10.39	8.75	13.10	11.80	9.86*
캄보디아	8.50	12.88	14.67	8.50	4.68	3.94	6.29	4.33	2.48
라오스	3.10	13.35	10.43	0.78	1.11	2.09	3.26	1.85	2.44
미얀마	24.85	30.95	31.31	6.96	6.26	3.86	8.69	4.24	2.98
브루나이	0.43	4.85	5.46	0.86	2.31	2.94	2.91	9.92	7.60
인도네시아	3.31	9.08	11.89	5.58	4.69	5.36	15.69	12.99	11.70
말레이시아	3.17	8.82	12.80	5.76	5.50	4.65	19.66	17.26	12.48
필리핀	4.06	4.79	7.55	7.41	6.40	5.18	20.42	20.37	11.79
싱가폴	4.77	8.12	10.54	2.99	3.64	5.63	16.74	11.29	8.11
태국	4.11	8.00	11.17	3.38	3.85	3.81	22.97	24.09	18.85

주: *2007년 기준

출처: IFS, DOT

5. 한중일의 동남아 수입시장에서의 생산공정별 경쟁관계는 어떻게 변했는가 ?

<그림 1> 한중일 3국의 대동남아 수출 중 각국 비중: 총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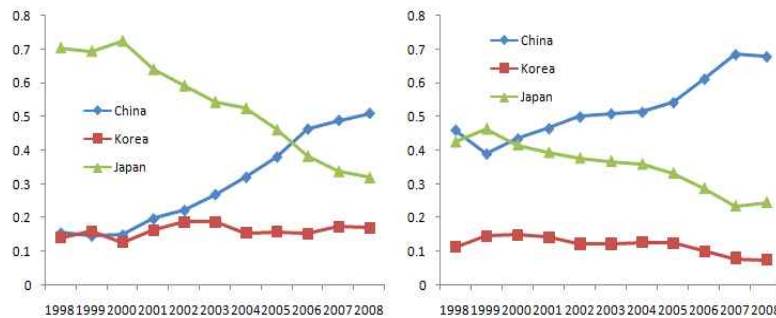
출처: UN, Comtrade DB 이용 계산.

한중일의 동남아 시장에서의 상호 경쟁관계를 기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3국의 대동남아 수출총액에서 각국의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1>은 3국의 대동남아 총수출액에서 각국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비중은 2001년에 한국의 비중을 넘어섰고, 2007년에는 일본의 비중을 추월하였다. 한편 한국의 경우 동 비중에 큰 변화가 없다. 이를 통해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수출이 중국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동 비중만을 가지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3국 중 일본의 비중 축소가 3국간 경쟁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3국이 아닌 미국, 유럽 국가 등 여타 국가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확대가 일본의 수출을 대체한 것이 아니고 여타 국가들의 수출을 대체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국 중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은 일본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의 많은 부분이 일본 다국적기업들의 동아시아 내 생산분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는바, 그러한 성격이 강할 경우 일본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감소를 주장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생산공정별로 나누어 한중일 3국의 동남아 시장에서의 상호 경쟁관계를 살펴보자. 3국의 대동남아 반제품 수출 중 중국의 비중이 2000년에 한국을, 2006년에 일본을 앞질렀다. 부품 및 부분품에 있어서는 2000년 이후 중국이 일본을 추월하였다. 2008년 기준으로 3국 중 중국의 비중은 반제품에 있어서 50%를 넘고 있으며, 부품 및 부분품에 있어서는 약 70%를 기록하는 등 중간재에 있어서는 중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그림 2 참조).

<그림 2> 한중일의 대동남아 수출 중 각국 비중: 반제품(좌), 부품 및 부분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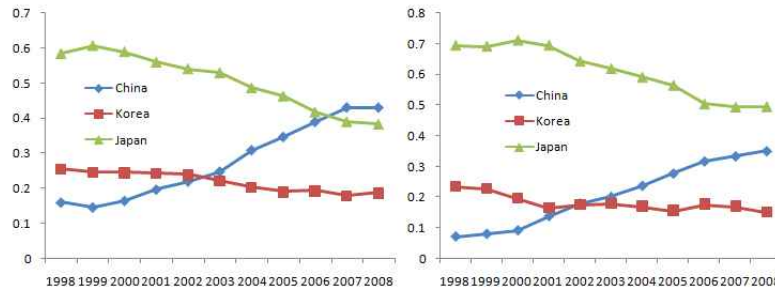


출처: UN, Comtrade DB 이용 계산.

한편 최종재의 경우 중간재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중국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일본의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은 중간재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중국이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종재 중 자본재의 경우 2007년에 중국이 일본을 추월했으나 일본과 중국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며, 소비재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일본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한편 3국 중 한국 비중은 자본재와 소비재 모두에 있어 소폭 감소내지 횡보하는 모습이다. 최종재에 있어서 한국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중국에 추월당했다.

<그림 3> 한중일의 대동남아 수출 중 각국 비중: 자본재(좌), 소비재(우)



출처: UN, Comtrade DB 이용 계산.

동남아시아에서 한중일 3국의 수출경쟁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에 기초한 기술적 분석보다는 국제무역이론을 토대로 한 보다 면밀한 정량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3국시장에서 중국의 수출증가가 여타 국가의 수출을 구축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아이켄그린(Eichengreen 외 2004)이 이용한 방법론을 차용하기로 한다. 즉 중력모형을 통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동 시장 대한 한국과 일본의 수출을 구축하였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Ⅲ. 모형 및 분석결과

1. 모형 및 자료

본 장에서는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수출의 한국 및 일본수출 구축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앤더슨과 윈쿠프(Anderson and Wincoop 2003)가 개발한 (식 1)의 중력모형에 바탕을 둔다. 식 (1)에서 i 는 수출국, j 는 수출대상국을 가리킨다.

$$\ln\left(\frac{x_{ij}}{y_i y_{tj}}\right) = \beta_0 + \beta_1 \ln DIST_{ij} + \beta_2 BD_{ij} + \beta_3 LNG_{ij} + \beta_4 CN_{ij} - P_{ti}^\alpha - P_{tj}^{1-\alpha} + \epsilon_{tij} \quad (\text{식 1})$$

위 식에서 좌측의 종속변수는 교역국 각국(본 연구에서는 한국 또는 일본)과 교역상대국가들(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6개국²⁾)의 GDP곱 대비 양국간 교역액을 나타내고, 우측의 설명변수는 차례로 상수항, 교역국 각국과 교역상대국간 거리, 접경국 여부 더미변수, 공통언어 여부 더미변수, 식민지 여부 더미변수, 해당 수출국가에 의해서 야기되는 다양한 무역장벽(Multilateral resistance), 수출대상국으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무역장벽(Multilateral resistance³⁾)항목을 가리킨다. 이론적 모형(식(1))과 달리 실증분석에 있어 종속변수에 교역국의 GDP 곱 대비 수출액 대신, 수출액을 두고 교역국의 GDP 곱은 설명변수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경우 수출액과 GDP간에 내생성문제가 발생하여 추정치의 편의(bias)를 야기

2) 동남아 10개 중 한국, 일본과의 교역액이 아직까지 많지 않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는 실증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3) 여기에는 수입국가들이 부과하는 수출국가에 대한 다양한 무역장벽과 수출국가들에 있어서의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의 장애요인 등이 포함된다.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중력모형에 따라 GDP에 대한 계수값을 ‘1’로 제약하고 있는 식 (1)에 바탕을 두고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⁴⁾.

$$\ln\left(\frac{x_{tjj}}{y_{ti}y_{tj}}\right) = \beta_0 + \beta_1 \ln DIST_{tj} + \beta_2 \ln EXT_{tj} - P_{ti}^\alpha - P_{tj}^{1-\alpha} + \epsilon_{tjj} \quad (\text{식 } 2)$$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 일본의 대동남아 수출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식 (1)에서 접경국 여부 더미변수, 공통언어 여부, 식민지 여부 더미변수는 해당되지 않아 제외되었다. 대신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식 (1)에 중국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액(식 (2)에서 EXT_{tj} 에 해당)을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Eichengreen 2004 참조).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할 실증분석모형은 식 (2)가 된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한국(또는 일본)과 동남아국가들간의 연도별 수출자료를 분석하고 있어, 패널분석에 해당된다. 패널분석에 있어서 고정효과(fixed effect)와 임의효과(random effect)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중력모형을 이용한 기존 분석의 대부분에 있어 고정효과가 채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도 고정효과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식 (2)에서 P_{ti} 와 P_{tj} 에 의한 개별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 더미(ND)와 연도 더미(YD)를 식 (2)에 포함한 식 (3)으로 수정하여 이용한다. 수입국가가 수출국가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장벽을 연도별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국가더미와 연도별더미를 동시에 반영한 연도별국가더미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나, 그럴 경

4) 이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GDP 계수 값을 ‘1’로 제약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보다 내생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화될 수 있다.

우 실제 실증분석과정에서 특이성(singularity)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국가별 더미변수 대신 국가별 더미와 연도별 더미를 각각 분리하여 실증분석에 포함시킨다.

$$\ln\left(\frac{x_{tij}}{y_{ti}y_{tj}}\right) = \beta_0 + \beta_1 \ln DIST_{ij} + \beta_2 \ln EXT_{tcj} + \beta_3 ND_{ij} + \beta_4 YD_t + \epsilon_{tij} \quad (\text{식 3})$$

아이켄그린(Eichengreen 외 2004)은 종속변수에서 x_{tij} 와 EXT_{tcj} 간 내생성문제(endogeneity problem) 가능성을 지적하고, 내생성문제에 의한 추정치의 편의(bias)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도구변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도구변수는 중국 및 동남아 교역상대국 경제규모, 중국과 동남아 교역상대국간 거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 (3)에서 종속변수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교역상국간의 교역액 및 두 국가의 경제규모의 곱으로 하고 독립변수를 거리, 그리고 국가더미 및 연도더미로 하여 추정한 중국의 대동남아 국가간 수출액을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식 (3)을 토대로한 도구변수추정치(instrumental variable estimator)(식 4에서 b 에 해당)는 아래 식 (4)와 같이 구할 수 있다(즉 2단계최소자승법을 사용함). 식 (4)에서 X 는 거리, 대동남아 중국수출, 국가더미, 연도더미로 구성된 메트릭스를 의미하고, Z 는 거리, 대동남아 중국수출 추정치(EXT_{tcj}), 국가더미, 연도더미로 구성된 메트릭스를, 그리고 Y 는 한국(또는 일본)의 대동남아 수출액 벡터를 의미한다.

$$b = (Z'X)^{-1}(Z'Y) \quad (\text{식 4})$$

무역통계는 국제연합(UN)의 콤프트레이드(Comtrade) 자료, 국민총생산(GDP) 자료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금융통계(international finance statistics), 거리 및 언어 더미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국책 경제연

연구소(Centre d'Etudes Prospective et d'Informations Internationales; CEPII) 자료를 이용했다. 분석기간은 Comtrade에서 중국의 자료가 제공되는 1998년부터 2008년이다. 분석대상은 각각 한국과 일본의 동남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⁵⁾)에 대한 수출액이다.

2. 분석 결과

1) 대동남아 수출에 있어 중국은 한국을 구축하는가?

한국의 대동남아수출 경우에 있어서 상기 회귀모형에 기초한 실증분석 결과는 아래 <표 10>~<표 12>에 나타나 있다. 1차 산품 중 산업용 원자재(BEC 21)과 산업용 식음료품(BEC 111)에 있어서는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이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을 감소시킨 반면, 연료 및 윤활유(BEC 31)에 있어서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산업용 식음료품(BEC 111)의 경우 R^2 값이 너무 낮아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낮았고, 거리변수 추정치 역시 이론적 기대와 달랐다.

<표 11>에서 보듯이 모든 반제품 수출에 있어서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이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도 매우 높았다.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BEC 121)의 경우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이 1% 증가하면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은 0.47% 감소하고,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BEC 22)의 경우 0.9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BEC 322)의 경우에도 구축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정계

5) 동남아 10개국 중 6개만으로 분석대상을 국한한 이유는 한중일 3국의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에 대한 수출의 경우 특정연도의 특정 생산공정 부문에서 수출이 없는 경우가 상당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10> 한국의 생산공정별 계수 추정치: 1차 산품

BEC 코드	21	31	111
말레이시아	1.92*	8.06*	5.72*
필리핀	-2.74*	-3.19*	12.30*
싱가폴	-2.83*	-7.94*	-5.42*
태국	-1.39*	4.03*	1.11
베트남	-0.10	9.55*	15.10*
중국수출	-3.05*	1.35*	-10.32*
거리	3.93*	-7.75*	15.51*
1998	-1.96*	14.34*	-17.58*
1999	-0.92*	16.18*	-8.86*
2000	-0.51*	10.13*	-11.19*
2001	-1.80*	7.02*	-10.13*
2002	-0.61*	8.44*	-4.01*
2003	-0.15**	11.92*	-0.24
2004	-2.17*	8.24*	-8.05*
2005	-1.89*	10.39*	-15.02*
2006	-2.01*	1.66*	-3.40*
2007	-0.86*	-0.38	5.32*
R ²	0.30	0.44	0.08

주1: **(*)는 1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주2: 인도네시아와 2008년 더미는 특이성을 고려해 배제.

수 R² 값이 매우 낮았다. 한편 거리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가 기대되나 BEC 22와 322의 경우 (+)를 보여 이론에 부합되지 못했다.

부품 및 부분품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이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거리에 대한 계수 추정치 부호 역시 (-)로 이론에 부합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운송 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것(BEC 42)의 경우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이 1% 증가하면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은 0.04% 감소하고, 운송 장비의 것(BEC 53)의 경우 0.14% 감소한다. 즉 중간재에 있어서는 부품 및 부분품 보다는 반제품에 있어서 중국수출에 의한 한국수출 구축효과가 더 크다.

<표 11> 한국의 생산공정별 계수 추정치: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BEC코드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121	22	322	42	53
말레이시아	-1.01*	-0.32*	0.06	1.64*	0.59*
필리핀	0.85*	-0.40*	-0.02	2.00*	0.60*
싱가폴	0.45*	0.09*	-3.54*	2.26*	1.18*
태국	-1.20*	0.04	1.00*	0.01	-0.11*
베트남	0.04	1.39*	3.55*	-0.10*	1.31*
중국수출	-0.47*	-0.91*	-2.10*	-0.04	-0.14**
거리	-1.95*	0.25*	1.30*	-2.18*	-2.14*
1998	0.51*	-1.34*	-5.02*	1.35*	-0.56*
1999	0.01	-1.59*	-5.36*	1.19*	-0.55*
2000	-0.32*	-1.42*	-5.01*	1.10*	-0.44*
2001	-0.39*	-1.47*	-5.58*	0.86*	-0.21
2002	-0.40*	-1.42*	-4.90*	0.85*	-0.23**
2003	-0.53*	-1.33*	-4.54*	0.78*	-0.06
2004	-0.83*	-0.85*	-3.52*	0.70*	-0.09
2005	-0.88*	-0.79*	-3.53*	0.34*	-0.17*
2006	-0.47*	-0.61*	-3.41*	0.25*	-0.58*
2007	0.16*	-0.45*	-1.99*	0.02*	-0.33*
R ²	0.43	0.89	0.06	0.95	0.73

주: 반제품 중 자동차 차체(BEC 321)는 교역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분석에서 제외.

한편 최종재에 있어는 중간재와는 다소 다른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표 12-1, 12-2 참조). 최종재 중 자본재의 경우에는 중간재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은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 장비를 제외한 자본재(BEC 41)에 있어서는 중국의 1% 수출증가가 한국의 수출을 0.4% 감소시키고, 거리에 대한 추정치 역시 이론에 부합된다. 산업용 운송장비(BEC 521)의 경우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 1% 증가가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을 9.8%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정계수 R² 값으로 평가한 표본회귀선 적합도가 0에 가까워 추정치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표 12-1> 한국의 생산공정별 계수 추정치: 자본재, 소비재

BEC코드	자본재		소비재		
	41	521	112	122	51
말레이시아	1.05*	9.59	0.40*	-1.32*	11.35*
필리핀	0.64*	-1.53	0.30*	1.09*	-16.22*
싱가폴	1.67*	32.43	1.03*	-0.05*	11.62*
태국	0.39*	6.59*	-0.64*	0.14*	2.92*
베트남	0.79*	6.11	-0.99*	0.52*	-12.18*
중국수출 거리	-0.40*	-9.78	0.10*	0.39*	3.94*
	-1.27*	18.59	-3.02*	-3.40*	-9.44*
1998	-0.77*	-22.16	0.81*	1.30*	58.25*
1999	-0.82*	-24.64	0.89*	1.29*	65.17*
2000	-0.58*	-31.80	0.81*	0.82*	63.80*
2001	-0.29*	-30.26	0.70*	1.10*	23.13*
2002	-0.26*	-25.95	0.39*	0.69*	41.81*
2003	-0.14*	-24.62	0.14*	0.54*	18.97*
2004	-0.15*	-22.71	-0.37*	0.28*	16.24*
2005	-0.23*	-16.17	-0.42*	0.14*	8.30*
2006	-0.29*	-13.52	-0.30*	-0.12*	5.17*
2007	-0.29*	-6.67	-0.23*	-0.13*	4.09*
R ²	0.80	0.00	0.65	0.83	0.08

그러나 최종재 중 소비재 경우 일부 품목에 있어 중국수출과 한국수출간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품목인 총 7개 중에서 4개 품목에 있어 보완관계가 확인되었다. 특히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BEC 522) 경우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이 1% 증가하면 한국의 대동남아수출은 2.8%나 증가하고,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BEC 122)의 경우에도 0.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용 자동차(BEC 51)와 가정용 식음료 제품(BEC 112)의 경우에도 각각 3.94%와 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자의 경우 R²값이 너무 작아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한편 내구성 소비재(BEC 61), 반내구성 소비재(BEC 62), 비내구성 소비

<표 12-2> 한국의 생산공정별 계수 추정치: 소비재(계속), 전체

BEC코드	소비재				전체
	522	61	62	63	
말레이시아	3.30*	0.71*	0.41*	0.50*	1.02*
필리핀	3.35*	-0.50*	0.46*	0.90*	0.38*
싱가폴	5.78*	3.35*	2.38*	1.43*	2.05*
태국	4.52*	-0.42*	-0.59*	-0.22*	0.09*
베트남	1.24*	-0.78*	1.70*	2.61*	1.13*
중국수출	2.80*	-1.68*	-1.19*	-0.61*	-0.93*
거리	-9.11*	1.10*	0.20	-1.23*	0.47*
1998	14.76*	-2.22*	-0.91*	-0.70*	-1.36*
1999	9.60*	-1.35*	-0.89*	-0.64*	-1.46*
2000	6.79*	-0.72*	-1.07*	-0.66*	-1.26*
2001	5.01*	-0.42*	-1.08*	-0.45*	-1.27*
2002	4.45*	-0.17	-0.86*	-0.39*	-1.13*
2003	4.49*	-0.03	-0.66*	-0.27*	-0.97*
2004	3.46*	0.14	-0.63*	-0.23*	-0.72*
2005	1.75*	-0.11	-0.79*	-0.27*	-0.64*
2006	1.28*	-0.35*	-0.64*	-0.34*	-0.56*
2007	0.25	-0.20*	-0.30*	-0.33*	-0.38*
R ²	0.43	0.68	0.90	0.93	0.89

주: **(*)는 1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재(BEC 63)의 경우 중국의 수출은 한국의 수출을 구축하였다. 특히 내구성 소비재(BEC 61)와 반내구성 소비재(BEC 62)의 경우 중국수출 1% 증가시 한국의 수출은 각각 1.68%와 1.19%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구성 소비재(BEC 61)와 반내구성 소비재(BEC 62)의 경우 거리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이론적 기대와 일치하지 않았다. 한편 총수출에 있어서는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 1% 증가는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을 0.93%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2에서 ‘전체’ 참조).

2) 대동남아 수출에 있어 중국은 일본을 구축하는가?

<표 13> 일본의 생산공정별 계수 추정치: 1차 산품

BEC코드	21	31	111
말레이시아	0.95*	-2.97*	0.18
필리핀	-1.09*	-4.04*	21.26*
싱가폴	-0.23*	-5.47*	-4.50*
태국	0.53*	0.14	-3.90*
베트남	0.71*	-15.39*	10.45*
중국수출	-0.25*	0.11	-9.28*
거리	-2.28*	-3.63*	14.70*
1998	-0.19*	1.08	-15.36*
1999	-0.10*	-1.28	-8.75*
2000	-0.06**	0.37	-15.00*
2001	0.15*	0.16	-13.43*
2002	0.33*	-5.14*	-8.17*
2003	0.28*	0.15	-1.50*
2004	0.19	2.96*	-5.63*
2005	0.02	3.06*	-7.16*
2006	0.04	-0.03	-1.68*
2007	-0.06*	-0.24	3.26*
R ²	0.84	0.73	0.11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에 의한 일본의 대동남아 수출의 구축효과 역시 생산공정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차 산품 중 산업용 원자재(BEC 21)과 산업용 식음료품(BEC 111)에 있어서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은 일본의 대동남아 수출을 감소시킨 반면, 연료 및 운할유(BEC 31)에 있어서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3 참조). 그러나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용 식음료품(BEC 111)의 경우 R² 값이 너무 낮아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낮았으며, 거리변수 추정치 역시 이론적 기대와 달랐다.

<표 14> 일본의 생산공정별 계수 추정치: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BEC코드	반제품			부품 및 부분	
	121	22	322	42	53
말레이시아	0.66*	0.74*	0.13*	1.81*	0.32*
필리핀	-2.01*	0.20*	-1.34*	0.71*	-1.62*
싱가폴	2.56*	1.07*	-0.33*	2.38*	-0.36*
태국	1.26*	1.20*	0.26*	1.20*	0.47*
베트남	1.94*	0.81*	-1.97*	-0.62*	-1.84*
중국수출	-0.16*	-0.90*	-0.36*	-0.28*	0.16*
거리	-2.87*	0.03	-2.15*	-1.70*	-2.78*
1998	0.60*	-1.97*	-0.84*	0.02	0.33*
1999	0.44*	-2.00*	-0.77*	0.04	0.59*
2000	0.39*	-1.72*	-0.68*	0.21*	0.66*
2001	0.51*	-1.70*	-0.74*	0.20*	0.63*
2002	0.56*	-1.49*	-0.50*	0.20*	0.70*
2003	0.40*	-1.32*	-0.56*	0.20*	0.62*
2004	0.41*	-0.86*	-0.37*	0.25*	0.49*
2005	0.40*	-0.62*	-0.34*	0.21*	0.35*
2006	0.31*	-0.40*	-0.29*	0.17*	0.08*
2007	0.38*	-0.14*	-0.29*	0.16*	0.06*
R ²	0.92	0.74	0.37	0.91	0.90

반제품의 경우에는 모든 품목에 있어서 중국수출에 의한 일본수출의 구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계수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도 매우 높았다(표 14 참조). 특히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BEC 22)의 경우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이 1% 증가하면, 일본의 대동남아 수출이 0.9%나 감소하였다. 부품 및 부분품의 경우에는,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증가가 운송 장비의 것(BEC 53)에 있어서 일본의 대동남아 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운송 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것(BEC 42)에 있어서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1> 일본의 생산공정별 계수 추정치: 자본재, 소비재

BEC코드	자본재		소비재		
	41	521	112	122	51
말레이시아	0.86*	-5.03	0.22*	0.45*	2.57*
필리핀	-0.70*	-12.15	-2.52*	-0.93*	-3.52*
싱가폴	1.51*	-25.71	2.53*	1.59*	2.97*
태국	0.70*	-5.63	1.65*	1.55*	0.28*
베트남	-0.24*	-8.23	-0.80*	-0.59*	-2.33*
중국수출 거리	0.01	9.73	0.43*	-0.10**	0.43*
	-2.43*	-24.30	-4.14*	-2.61*	-3.43*
1998	0.65*	23.46	0.31*	-0.13**	6.62*
1999	0.43*	25.03	0.13	-0.71*	7.27*
2000	0.60*	31.77	0.37*	-0.65*	7.43*
2001	0.54*	30.65	0.80*	-0.53*	3.00*
2002	0.41*	26.23	0.49*	-0.43*	5.23*
2003	0.32*	24.85	0.33*	-0.41*	2.83*
2004	0.29*	23.01	0.22*	-0.45*	2.49*
2005	0.23*	16.34	-0.01	-0.36*	1.25*
2006	0.13*	13.31	-0.03	-0.30*	0.42*
2007	0.08*	6.93	-0.10**	-0.13*	0.36*
R ²	0.88	0.02	0.73	0.78	0.21

한편 자본재의 경우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증가는 일본의 대동남아 수출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경우 모두 해당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았으며, 특히 산업용 운송장비(BEC 521) 경우 R² 값 또한 매우 낮았다(표 15-1 참조). 소비재에 있어서는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증가에 의해 일본의 대동남아 수출이 감소된 경우가 세 가지(BEC 122, 61, 63) 품목이었으며, 증가한 경우가 네 가지(BEC 112, 51, 522, 62) 품목이었다(표 15-1, 15-2 참조). 특히 소비재 중에서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큰 부문은 내구성 소비재(BEC 61)와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BEC 522)로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이 1% 증가할 때 전자의 경우 일본의 대동남아 수출은

<표 15-2> 일본의 생산공정별 계수 추정치: 자본재(계속), 전체

BEC코드	소비재				전체
	522	61	62	63	
말레이시아	3.60*	3.22*	0.88*	1.56*	1.27*
필리핀	-1.31*	3.10*	-0.30*	0.10*	0.48*
싱가폴	4.90*	8.55*	1.64*	2.49*	2.06*
태국	3.79*	1.69*	1.51*	1.20*	1.02*
베트남	-0.46*	-0.43*	0.00	0.66*	0.24*
중국수출	1.60*	-3.76*	0.63*	-0.19*	-0.60*
거리	-6.51*	5.68*	-4.31*	-2.44*	-0.57*
1998	7.61*	-9.26*	2.08*	0.17*	-0.99*
1999	5.16*	-7.62*	1.76*	0.18*	-1.03*
2000	3.40*	-6.03*	1.62*	0.19*	-0.72*
2001	2.65*	-5.39*	1.62*	0.26*	-0.72*
2002	2.71*	-3.97*	1.43*	0.38*	-0.58*
2003	2.27*	-3.27*	1.25*	0.36*	-0.46*
2004	1.83*	-2.64*	1.13*	0.33*	-0.30*
2005	1.19*	-1.87*	0.97*	0.24*	-0.22*
2006	0.66*	-1.71*	0.80*	0.21*	-0.19*
2007	0.33*	-0.60*	0.26*	0.14*	-0.04*
R ²	0.28	0.54	0.90	0.97	0.87

3.76% 감소한 반면 후자의 경우 1.6%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이 전체적으로 1% 증가하면, 일본의 대동남아 전체수출은 0.6% 감소하였다(표 15-2에서 ‘전체’ 참조). 이는 중국상품에 의한 한국상품 구축효과(0.93%)가 일본상품 구축효과(0.6%)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수출품 품질면에서 한국이 일본과 중국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상품이 일본상품보다 더 치열하게 중국상품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의 분석을 살펴보면, 한중일 3국의 대동남아 수출구조에 있어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과 2008년을 비교했을 때 한중일 3국에 있어서 수출시장으로서 동남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특히 한중일 3국 수출의 대부분은 여전히 ASEAN6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동남아 수출에서 인도차이나 국가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한중일 3국의 대동남아 수출은 최종재 보다는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으로 이루어진 중간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중간재 중에서는 부품 및 부분품 비중은 축소되는 대신 반제품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한중일 3국의 대동남아 수출은 싱가포르 중심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다변화되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태국의 비중 확대가 두드러졌다. 넷째, 동남아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동남아 수입시장점유율은 소폭 하락 내지 행보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생산공정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동남아수입시장에서 중국의 한국 및 일본 수출 구축 여부를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증가는 한국과 일본의 대동남아수출을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그 구축정도는 일본보다는 한국에 있어서 더 컸다. 또한 구축효과의 방향성과 크기는 생산공정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16 참조).

1차 산업 중 산업용 원자재(BEC 21)과 산업용 식음료품(BEC 111)의 경우 중국의 수출은 한국과 일본의 대동남아 수출을 감소시키는 반면, 연료 및 윤활유(BEC 31)의 경우 오히려 증가시켰다. 반

<표 16> 동남아에 대한 중국 수출이 한일 수출에 미치는 효과

	한국수출증가	한국수출감소
일련 수출 증가	1차 상품: 1차 연료 및 윤활유(31) 자본재: 산업용 운송장비(521) 소비재: 가정용 식음료 제품(112) 승객용 자동차(51)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522)	부품 및 부분품: 운송 장비의 것(53) 자본재: 운송 장비를 제외한 자본재(41) 소비재: 반내구성 소비재(62)
일련 수출 감소	소비재: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122)	1차 상품: 1차적 산업용 원자재(21) 산업용 식음료품(111) 반제품: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121)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22)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322) 부품 및 부분품: 운송 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것(42) 소비재: 내구성 소비재(61) 비내구성 소비재(63)

출처: <표 10> ~<표 15>를 이용하여 재정리함.

제품의 경우에는 모든 부문에 있어서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이 한국과 일본의 수출을 구축하였다. 부품 및 부분품의 경우 운송 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것(42)에 있어서, 그리고 소비재의 경우 내구성 소비재(61)와 비내구성 소비재(63)에 있어서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이 한국과 일본의 대동남아 수출을 동시에 구축하였다. 반면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이 한국과 일본의 수출을 모두 증가시킨 부문도 있는데, 자본재의 경우 산업용 운송장비(521), 소비재의 경우 가정용 식음료 제품(112), 승객용 자동차(51),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522)가 그것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최종재라는 점이다. 한편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

이 한국의 수출을 증가시키나 일본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부문으로는 산업용 운송장비(521), 가정용 식음료 제품(112), 승객용 자동차(51),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522)를 들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이 한국의 수출을 감소시키나 일본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부문으로는 운송 장비의 것(53), 운송 장비를 제외한 자본재(41), 반내구성 소비재(62)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선진국시장이 아닌 동남아시아에서의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의 경쟁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할 수 있다. 선진국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에서 역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수출을 전반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축여부와 그 정도는 생산공정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한국 중간재의 경우 모든 품목에서 구축효과가 나타난 반면, 확대효과는 소비재 일부 품목에서만 나타났다.

중간재에 있어서 이러한 구축효과는 이론적으로 볼 때 다국적기업들의 생산분할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공정별로 중국수출품과 한국수출품간 경쟁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나, 중국수출에 의한 한국수출의 구축이 중국현지기업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구축인지 아니면,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생산분할 확대에 의한 우회수출의 현상인지, 또는 미국 등 중국진출 제3국가 기업에 의한 구축인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기업단위의 자료를 활용한 보다 미시적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주제어: 동남아 수입시장, 한중일, 경쟁관계, 수출구조 변화

〈참고문헌〉

- 김완중. 2010. “동남아 수입시장에서 한중일의 경쟁관계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8(1).
- Aheane, A. G., Fernald, J. G., Loungani, P., and Schindler, J. W. 2003. "China and Emerging Asia: Comrades or competitors?" Working Paper 2003-27, Board of Governors, Federal Reserve System.
- Eichengreen, Barry, Yeongseop Rhee, and Hui Tong. 2004. "The Impact of China on the Exports of Other Asian Countries." NBER Working Paper 10768.
- Greenaway, David, Aruneema Mahabir and Chris Milner. 2008. "Has China displaced other Asian countries' exports?" China Economic Review 19. pp.152-169.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9. Direction of Trade DB.
- Sanjayaa Lall and Manuel Albaladejo. 2004. "China's Competitive Performance: A Threat to East Asian Manufactured Exports?" World Development 32(9). pp.1441-1466.
- United Nations. 2010. Commtrade DB.

(2010. 7. 8 투고; 2010. 9. 17 심사; 2010. 10. 12 게재확정)

<Abstract>

Changes of Export Structure and Crowding-out Effects of China on Korean and Japanese Exports in Southeast Asia: Analysis by Production Phase

Wanjoong Kim
(Dong-A University)

One of main findings of the competitiveness relation is rapid increase of Chinese influence on the southeast Asian market. While Japanese market share is decreasing, Chinese market share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the market. It is the same regardless of types of production phases.

Analysis based on gravity model shows that in general Chinese exports is crowding out Korean and Japanese export to the market. The magnitude of the effects on Korean exports is larger than on Japanese exports. Also, It is found that the directions of the effect of Chinese exports on Korean and Japanese exports are different by production phrases. For all processed goods, increase of Chinese exports decreases both Korean and Japanese exports to the market. However, for some final goods such as transport equipment and food & beverages for household, Chinese exports is increasing Korean and Japanese exports to the market.

Key Word: Korea, China, Japan, crowding-out effect, ASEAN, Exports.